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변 경 란

김 은 정[†]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발달 및 유지에 기여하는 생물학적 취약성,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들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취약성에 해당하는 행동억제 기질과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정적 자기 개념 및 타인 인정 추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285명이 회고적 자기보고식 행동억제 질문지, 심리적 통제 척도,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 척도, 승인 동기 척도 개정판, 사회 공포증 척도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행동억제기질은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 인정 추구,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를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의 경우에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를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 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의 치료에 있어 기질적 취약성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행동억제기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 인정 추구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 E-mail : kej@ajou.ac.kr

사회불안(social anxiety)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수행 상황에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비교적 일찍 발병하고, 발병하게 되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적이다(오윤희, 2006; 이시형, 여인중, 오강섭, 1994; Beidel, 1998; Stein & Kean, 2000). 특히,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 시기는 친밀감 형성이 중요한 발달 과제인 시기이며(Erikson, 1950), 기존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발표 수업,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평가 경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학업 수행이나 진로 선택 등 다양한 수행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한가희, 2018; Hardin et al., 2006). 이에 사회불안 장애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들과 그 경로를 확인하여 사회불안이 지속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Barlow(2002)는 사회불안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생물학적 취약성,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 중 생물학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불안 장애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행동억제 기질을 강조한다(Chronis-Tuscano et al, 2009; Clauss & Blackford, 2012; Hirshfeld-Becker et al., 2008; Schwartz et al., 1999). 행동억제 기질은 이른 아동기에 식별되는 기질로, 낯선 사람이나 상황,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기질적 경향성을 말한다(Fox & Henderson et al., 2005; Kagan, Reznick,

& Snidman, 1988). 여러 연구자들은 사회불안의 발달에 과보호적이고 침투적인 양육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도, 행동억제 기질은 시간이 흘러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임을 강조한다(Degnan & Fox, 2007; Fox et al., 2005). 국내의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 모두에서 행동억제 기질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6개월 후 추적 연구를 통해서도 청소년기 사회불안을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는 기질과 다양한 인지 과정이 관련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양주경, 2007; Mogg & Bradley, 1998, Taghavi, Moradi, Neshat-Doost, Yule, & Dalgleish, 2000). Schwartz, Snidman과 Kagan(1996)의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기질로 분류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위협적, 긍정적, 중성적인 단어를 제시하여 정서와 관련된 스트룹 과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행동억제기질로 분류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위협적인 단어에서 반응시간이 더욱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억제기질을 지닌 아동들이 위협적인 단어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단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모호한 단서를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정보처리편향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와 관련해 제시되는 단서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자기상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불안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들 수 있다. Barber(1996)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심리

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 불안 등 내현화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가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애정 철회, 죄의식 유발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해 자녀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 등에 지나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행동을 말한다. Arim과 Shapka(2008)는 어머니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불안과 같은 내현화 문제 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낸다고 보았다. 국내의 김송아(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사회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안명희(201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언어적 침해 행동을 많이 경험한다고 느낄수록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기에 대한 부적절감이 증가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내면화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신희수, 안명희, 2013; 이소담, 2017). 이에 자기에 대한 유능감을 느끼기 어렵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저하되어 우울, 불안, 무기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해 부모의 성차를 살펴본 여러 선행 연구가 있지만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Barber, Bean, & Erikson, 2002). 다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다(Nelson & Crick, 2002).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아버

지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이 축소되어 보고되거나 간과되어 있는 상태이나, 자녀의 적응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게 서로 다른 양육행동을 적용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동억제 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떻게 사회불안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의 여러 인지적 모델에서는 자기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사회불안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Rapee와 Heimberg(1997)의 모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표상에 대해 왜곡된 심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Hofmann(2007)은 실제적, 이상적, 당위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만들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의 부정적인 정보에 더 몰입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만들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국내의 양주경(2007)은 행동억제기질 및 가족환경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행동억제기질이 사회적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신념 등이 포함된 역기능적 신념을 매개해 사회불안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허유정(2002)도 행동억제기질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개념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타인에게 괜찮은 인상을 주었는지 지속적으로 걱정, 불안해하게 되고 결국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Wu & Mallinckrodt, 2005). 이와 관련해, Dykman(1998)은 자기 비난적이고 자기 가치감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며, 타인으로부터 주시되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가치, 유능성, 호감도를 증명하려는 인정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Wei와 Mallinckrodt(2005)은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를 타인 인정 추구라고 명명하였고, 이를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 동의를 얻거나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나 칭찬 같은 강화를 받기 원하면서도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과 같은 처벌은 피하고 싶은 심리 상태로 보았다.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불안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점차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기 가치감에 타인의 평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항상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얻기 어려우므로 사회적인 거절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취약해져 사회불안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세은(2005)이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신념이 통제집단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발표 불안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을 확인하였다. 한민희(2010)도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타인 인정 추구가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행동억제기질 및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게 되고,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추구하게 되면서 사회불안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억제기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정적 자기 개념 및 타인 인정 추구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기질 및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행동억제기질 및 부모의 심리적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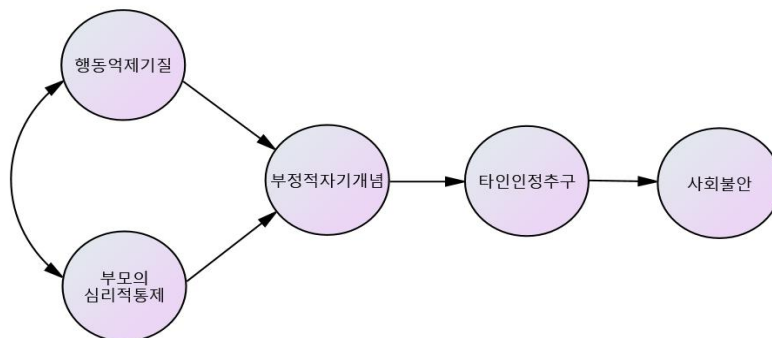


그림 1. 완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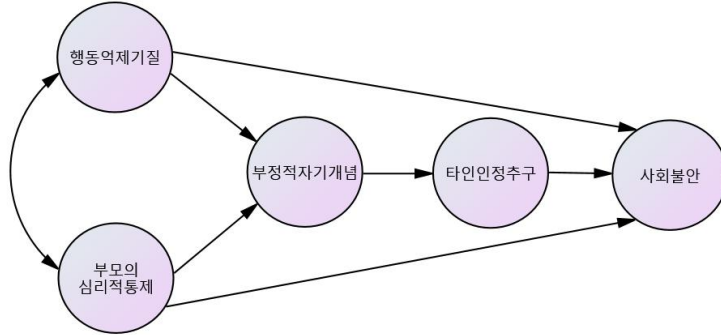


그림 2. 부분 매개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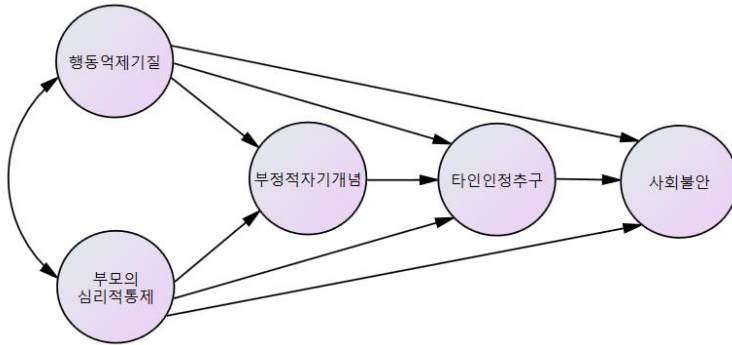


그림 3. 부분 매개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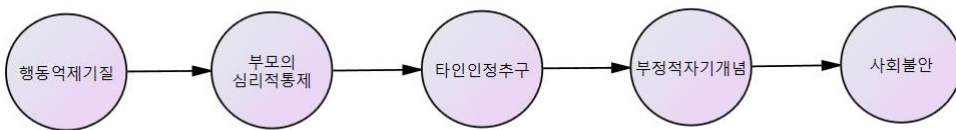


그림 4. 경쟁 모형

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 1과 2와 같다(그림 1, 2, 3 참고). 그리고 본 연구의 모형비교를 위해 경쟁모형을 세웠다. 초기의 사회적 두려움과 행동 억제가 부모의 과보호와 과잉통제와 같은 양육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Rubin,

Stewart와 Chen(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행동 억제기질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경쟁 모형을 세웠다(그림 4 참고).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경기권 소재의 대학교 대학생 299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28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참가자들 중 남자가 135명(47.4%), 여자가 150명(52.6%)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2.54세(SD=2.00)였다.

측정도구

회고적 자기보고식 행동억제 질문지

(Retrospective Self-Report Inhibition: RSRI)

Reznick, Hegeman과 Wood(1992)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번안한 회고적 자기보고식 행동억제 질문지를 사용해 행동억제 성향을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총 30문항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시기를 기준으로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고 총 점수는 30점-150점 범위이다. Reznick 등(1992)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79였고, 임상집단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91이었다.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 본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 총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73, 소척도 별로 사회적 회피 .75, 수줍음 .77, 신체화 .64, 단순공포 .61, 분리불안 .7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70, 소척도 별로 사회적 회피 .84, 신체화 .68, 수줍음 .79, 단순공포 .65, 분리불안 .75 였다.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

Barber(199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최명진(2010)이 번안한 심리적 통제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문항들은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행동들을 묘사하는 것들이며, 자녀가 직접 부와 모의 심리적 영역에서의 통제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심리적 통제를 독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PCS-YSR은 총 16문항으로 언어적 표현의 제약, 감정의 무효화, 기괴한 정서적 행동을 묘사한다. 1-3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더 넓은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해 최명진(2010)이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총점은 16점에서 8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94, 모의 심리적 통제가 .92였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Short version of the Dysfunction Beliefs Test, SDBT)

역기능적 신념검사(Dysfunction Beliefs test, DBT)는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용래와 원호택(1999)에 의해 개발된 총 70개의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개발 후, 사회불안 또는 발표 불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문항 수가 많아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이론적 연구나 임상 실제에서 다른 측정도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홍세희와 조용래(2006)가 문항 반응이론을 통해 각

하위 척도별로 문항적합도와 곤란도가 가장 적절한 문항들로 엄선한 단축형 역기능적 신념검사(Short version of the Dysfunction Beliefs Test)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역기능적 신념검사는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타인 및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라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척도 별로 12개의 문항씩 총 36 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신념 중에서도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측정하려 하므로, 하위척도 중에서도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Negative Concept of Social Self, NCSS) 요인에 해당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본인의 평소 신념과 일치하는 정도 혹은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에 대한 높은 부정적 개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승인 동기 척도 개정판(The Revised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 RMLAM)

대학생의 타인 인정 추구를 측정하기 위해 Martin(1984)이 개발과 개정에 참여한 승인동기 척도 개정판(The Revised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 RMLAM)을 이정숙(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타인으로 부터 부정적인 평가 및 거절을 피하고 긍정적인 평가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타인에게 인정 및 수용 받고 싶어 하며, 비판과 거부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척도이며, 5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1이었다.

사회 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본 연구에서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한 사회 공포증 척도(SPS)를 김향숙(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 관찰되는 상황 및 사건 등을 기술한 20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불안(사회공포증) 특성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자료는 질문지에 응답하는 자기 보고 형태로 수집되었다. SPSS 19.0을 사용해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0.0과 M-Plus 6.0을 사용하여 매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측정 도구가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CFI, N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세희(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CFI, N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CFI, NFI, TLI의 값은 0에서 1사이이며,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값의 하한선은 0이지만 상한선은 제한되어있지 않으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Brown과 Cudeck (1993)에 따르면, RMSEA 값은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5~.08이면 적당한 적합도(reasonable fit), .1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

(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들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nest-nested) 모형이므로, 연구 모형들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해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Brown, 1990).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비교를 위해, 간명적합지수 AIC, BIC, ECVI를 사용하였다. AIC, BIC, ECVI 값은 작을수록 간명하고 좋은 모델이며(Browne & Cudeck, 1989), BIC 값은 두 모형 간 차이가 2 이하면 약한 차이, 2 ~6 이면 실증적 차이, 6~ 10이면 큰 차이, 10 이상은 매우 큰 차이로 본다(Raftery, 1995).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분석(Shrout & Bloger, 2002)을 사용하였다. Bootstrap 검증 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본다(Preacher & Hayes, 2004, 2008).

결 과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기술 통계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 자료를 제외한 남

학생 135명(47.4%), 여학생 150명(52.6%) 총 285명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행동억제 기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정적 자기 개념, 타인 인정 추구, 사회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행동억제기질은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기개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35, p<.01$, 종속변인인 사회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4, p<.01$. 이는 행동억제기질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기개념과 사회불안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독립변인인 심리적 통제 중 모의 심리적 통제는 매개 변인인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정적 상관을, $r=.38, p<.01$, 종속변인인 사회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4, p<.01$. 부의 심리적 통제도 매개 변인인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정적 상관, $r=.37, p<.01$, 종속변인인 사회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3, p<.01$. 또한 두 개의 매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 분석

	M(SD)	1	2	3	4	5	6
1. 행동억제	30.90(7.99)	1					
2. 사회불안	17.34(12.25)	.44**	1				
3. 부정적 자기개념	27.28(12.54)	.35**	.52**	1			
4. 모의 심리적 통제	32.61(12.12)	.31**	.24**	.38**	1		
5. 부의 심리적 통제	29.92(13.05)	.29**	.33**	.37**	.49**	1	
6. 타인 인정 추구	61.12(10.00)	.32**	.49**	.39**	.14**	.24**	1

주. ** $p < .01$

개변인인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39, p<.01$, 타인 인정 추구도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9, p<.01$. 이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증가하면 타인 인정 추구도 증가하며, 타인 인정 추구가 증가하면 사회불안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는 행동억제기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 인정 추구, 사회 불안 총 5개의 잠재변인들이 포함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 인정 추구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사용해 각각 3개의 측정 변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모의 심리적 통제와 다른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이 신뢰 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chi^2=156.534, df=94, CFI=.981, NFI=.955,$

$TLI=.976, RMSEA=.048$. 또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다른 잠재변인들에 대한 요인 값도 신뢰 수준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chi^2=159.098, df=94, CFI=.982, NFI=.957, TLI=.977, RMSEA=.049$. 이를 바탕으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검증

행동억제기질 및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행동억제 기질과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분 매개 모형 1, 부분 매개 모형 2, 완전 매개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1과 2, 3에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완전 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chi^2(99)= 245.793, p < .001, CFI=.956, NFI=.929, TLI=.947, RMSEA=.072$ 였고, 부분 매개 모형 1의 적합도는 $\chi^2(97)= 186.412, p < .001, CFI=.973, NFI=.946, TLI=.967, RMSEA=.057$, 부분 매개 모형 2의

표 2. 완전매개모형, 부분매개모형1, 부분매개모형 2,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측정모형	χ^2	df	CFI	NFI	TLI	RMSEA	AIC	BIC	ECVI	$\Delta\chi^2$
완전매개모형	245.793***	99	.956	.929	.947	.072	319.793	454.935	1.126	59.381
부분매개모형1	186.412***	97	.973	.946	.967	.057	264.412	406.859	.931	
부분매개모형2	172.325***	95	.977	.950	.971	.054	254.325	404.077	.896	14.087
수정모형	174.029***	97	.977	.950	.972	.056	252.029	394.476	.887	1.704
경쟁모형	204.805***	99	.966	.938	.958	.064	287.805	422.947	1.013	

주.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TLI= the Tucket-Lewis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 < .001$,

표 3. 수정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행동억제기질 → 부정적 자기개념	1.082	.442	.212	5.095***
모의 심리적 통제 → 부정적 자기개념	.344	.239	.089	3.889***
부정적 자기개념 → 타인 인정 추구	.131	.285	.037	3.566***
타인 인정 추구 → 사회불안	.361	.284	.091	3.965***
행동억제 기질 → 사회불안	.818	.570	.145	5.651***
행동억제 기질 → 타인 인정 추구	.376	.332	.117	3.210**

주.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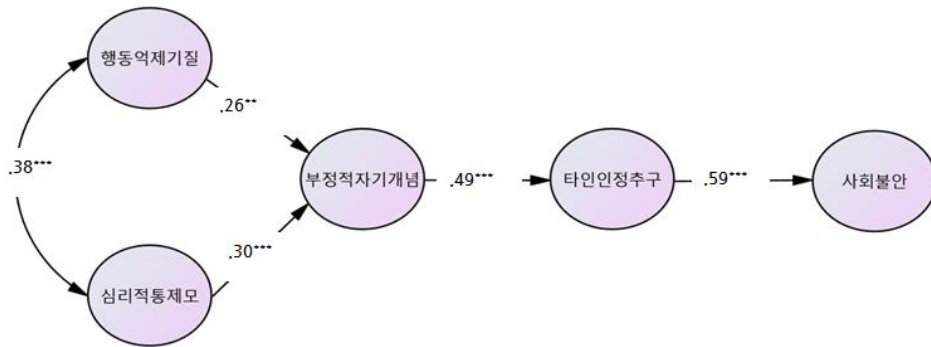


그림 5. 연구 모형 1 (완전매개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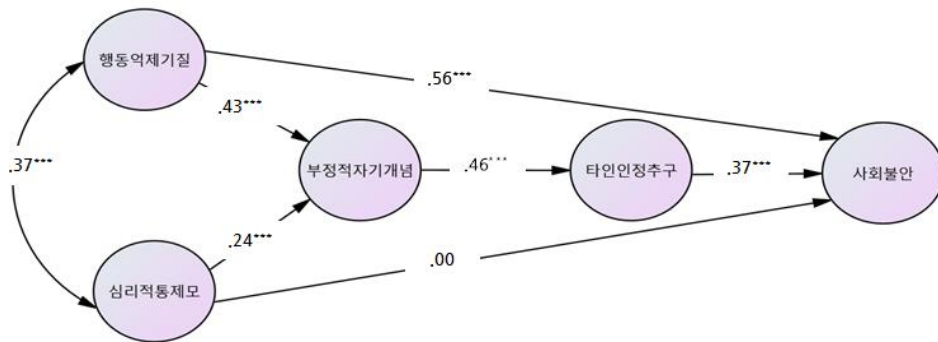


그림 6. 연구 모형 2 (부분매개모형 1)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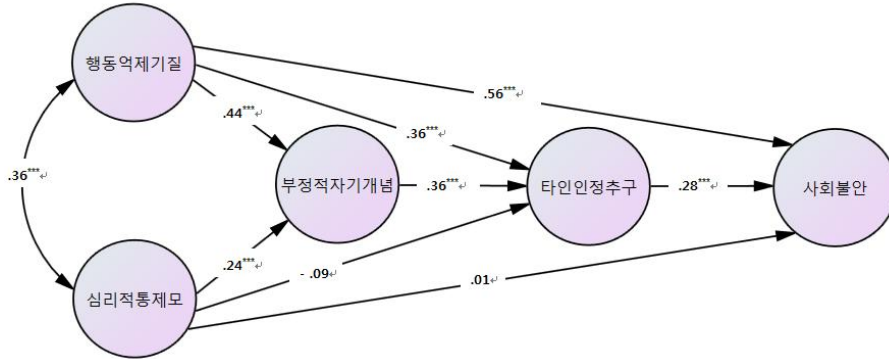


그림 7. 연구 모형 3 (부분매개모형 2) 검증

적합도는 $\chi^2(95) = 172.325, p < .001, CFI = .977, NFI = .950, TLI = .971, RMSEA = .054$ 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 중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분 매개 모형 1과 완전 매개 모형 간 적합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분 매개 모형이 완전 매개 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elta\chi^2 = 59.381, \Delta df = 2, p < .001$. 이어서 부분 매개 모형 1과 부분 매개 모형 2 간 χ^2 차이 검증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분 매개 모형 2가 부분 매개 모형 1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elta\chi^2 = 14.087, \Delta df = 2, p < .001$. 모형들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는 표 2, 3과 그림 5, 6, 7에 제시하였다.

수정모형 설정

초기에 설정한 부분 매개 모형 2에서 행동억제기질이 타인 인정 추구, 사회불안 각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했지만, 모의 심리적 통제가 타인 인정 추구, 사회불안 각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모형

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을 재설정하는 사후 모형수정 방법을 통해 수정모형을 설정하여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사후적 모형수정은 최소한 표본의 크기가 200~400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좋다(배병렬, 2011; 김혜지, 2014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측정오차상관이 설정되지 않았고 표본의 크기가 약 280개 이므로 사후모형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을 수정하였다. 모의 심리적 통제와 타인 인정추구, 사회불안 각각에 대한 직접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chi^2(97) = 174.029, p < .001, CFI = .977, NFI = .950, TLI = .972, RMSEA = .056$.

다음으로 부분 매개 모형 2와 수정 모형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nest-nested) 모형이므로,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CSDT; Brown, 1990)을 실시하였다. 이는 자유도가 변화함에 따라 χ^2 값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간명도를 나타내는 자유도 손실에 따라 설명력을 나타내는 χ^2 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 검증한다.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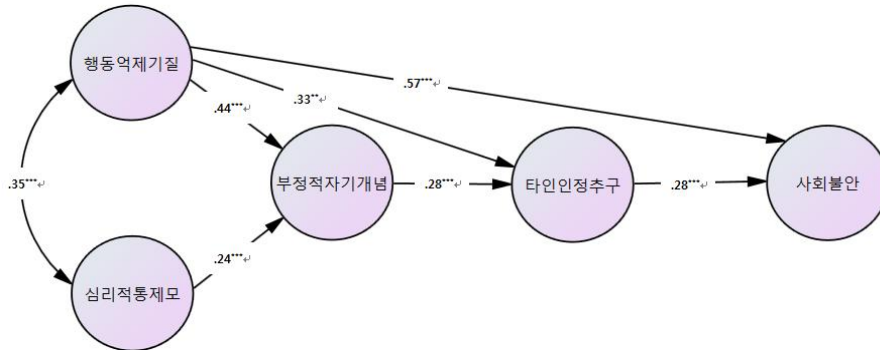


그림 8. 수정 모형 검증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자유도를 상실한 만큼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자유도가 큰 수정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는 표 2와 그림 8에 나타나있다.

채택된 모형에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한 결과, 행동억제 기질에서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 인정 추구를 통하여 사회불안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95% BC 신뢰구간(.005 - .123)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 인정 추구를 통하여 사회불안에 이르는 간접효과 또한 95% BC 신뢰구간 (.001 - .072)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기질에서 타인 인정 추구를 통하여 사회불안에 이르는 간접효과도 95% BC 신뢰구간 (.048-.234)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

표 4. 매개효과 및 매개효과 간 차이 검증

효과	Estimate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95%	upper 95%
매개경로1	.047	.027	.005	.123
매개경로2	.023	.018	.001	.072
매개경로3	.124	.068	.048	.234
전체 매개효과	.07	.041	.003	.166
매개효과 차이	.024	.021	.001	.108

주. N = 285, Bootstrap samples = 5000,

매개경로 1. 행동억제기질 → 부정적 자기개념 → 타인인정추구 → 사회불안, 매개경로 2. 모의 심리적 통제 → 부정적 자기개념 → 타인인정 추구 → 사회불안. 매개경로 3. 행동억제기질 → 타인 인정 추구 → 사회불안.

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따라서 행동억제기질과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가 매개하는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다음으로 채택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여 비교하였다. 두 모형은 상호 포함관계에 있지 않은 모형(non-nested model)이기 때문에 AIC, BIC, ECVI와 같은 간명적합도를 통해 비교하였다. AIC, BIC, ECVI는 작을수록 더 간명하고 좋은 모델이며(Browne & Cudeck, 1989), BIC 차이가 10 이상이면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의 AIC, BIC, ECVI가 경쟁모형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행동억제기질에서 모의 심리적 통제,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 인정 추구의 순서대로 매개해 사회불안에 이르는 경로보다 행동억제기질 및 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를 매개로 하는 간접 경로와 행동억제기질이 타인 인정 추구와 사회불안 각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있는 연구 모형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억제기질 및 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인정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행동억제 기질과 부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분매개 모형 1과 부분매개 모형 2, 완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완전 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chi^2(99) = 252.846, p < .001, CFI = .957, NFI = .931, TLI = .947, RMSEA = .074$ 였고, 부분 매개 모형 1의 적합도는 $\chi^2(97) = 187.374, p < .001, CFI = .975, NFI = .949, TLI = .968, RMSEA = .057$, 부분 매개 모형 2의 적합도는 $\chi^2(95) = 172.285, p < .001, CFI = .978, NFI = .953, TLI = .972, RMSEA = .054$ 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 중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분 매개 모형 1과 완전 매개모형 간 적합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 모형 1이 완전 매개 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 완전매개모형, 부분매개모형1, 부분매개모형 2,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CFI	NFI	TLI	RMSEA	AIC	BIC	ECVI	$\Delta\chi^2$
완전매개모형	252.846***	99	.957	.931	.947	.074	326.846	461.989	1.151	65.472
부분매개모형1	187.374***	97	.975	.949	.968	.057	265.374	407.821	.934	
부분매개모형2	172.285***	95	.978	.953	.972	.054	254.285	404.038	.895	15.089
수정모형	174.029***	97	.977	.950	.972	.056	252.029	394.476	.887	1.272
경쟁모형	218.324***	99	.966	.940	.959	.065	292.324	427.466	1.029	

주.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TLI= the Tucket-Lewis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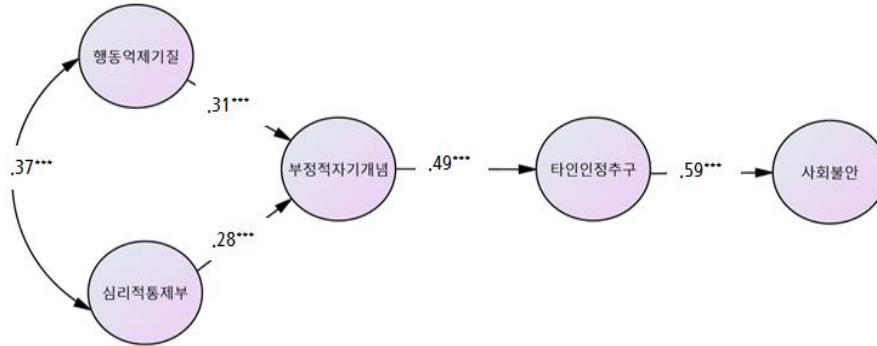


그림 9. 연구 모형 1 (완전 매개 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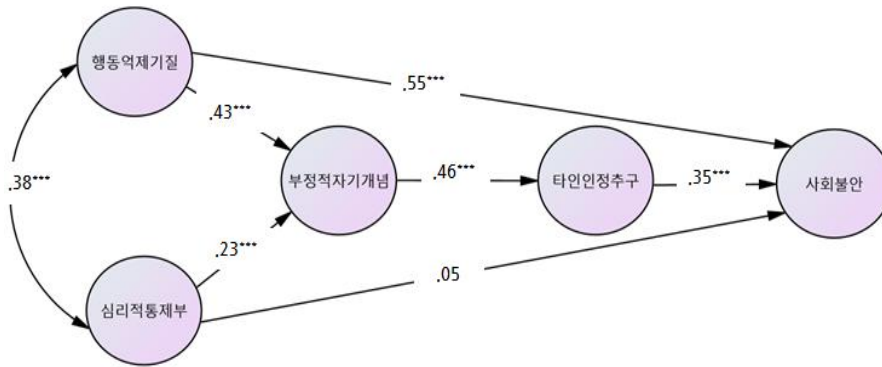


그림 10. 연구 모형 2 (부분 매개 모형 1)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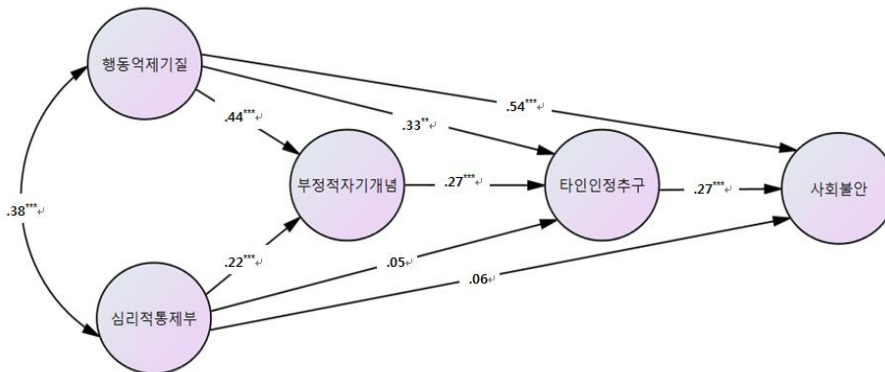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모형 3 (부분 매개 모형 2) 검증

$\Delta\chi^2 = 65.472$, $\Delta df = 2$, $p < .001$. 이어서 부분 매개 모형 1과 부분 매개 모형 2 중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분 매개 모형 1과 부분 매개

모형 2 간 적합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Delta\chi^2 = 15.089$, $\Delta df = 2$, $p < .001$. 즉, 부분 매개 모형 2가 부분 매개 모형 1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들의 상관과 경로계수 등은 표 5와 그림 9, 10, 11에 제시하였다.

수정모형 설정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된 부분 매개 모형 2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가 타인 인정 추구, 사회 불안 각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을 재설정하는 사후적 모형 수정 방법을 통해 수정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사후적 모형 수정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작거나 측정 오차 간에 상관되도록 설정하는 측정오차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모형은 측정오차 상관이 설정되지 않았고 표본의 크기가 약 280개 가량 되므로 사후모형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을 수정하였다(배병렬, 2001; 김혜지, 2014에서 재인용). 부의 심리적 통제가 타인 인정 추구, 사회불안 각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

외한 수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chi^2(97) = 173.557$, $p < .001$, CFI = .978, NFI = .953, TLI = .973, RMSEA = .053.

다음으로 부분 매개 모형 2와 수정 모형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nest-nested) 모형이므로,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CSDT; Brown, 1990)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Delta\chi^2 = 1.272$, $\Delta df = 2$, $p = .529$. 자유도를 상실한 만큼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자유도가 큰 수정 모형을 최종 채택하였다. 모형의 경로계수와 적합도는 표 5와 6,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채택된 모형에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한 결과, 행동억제 기질에서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 인정 추구를 통하여 사회불안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95% BC 신뢰구간(.002 - .111)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기질에서 타인 인정 추구를 통해 사회불안에 이르는 간접효과도 95% BC 신뢰구간(.046-.236) 사이에 0을 포함

표 6. 수정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행동억제기질 → 부정적 자기개념	1.148	.455	.229	5.007***
부의 심리적 통제 → 부정적 자기개념	.261	.199	.083	3.134**
부정적 자기개념 → 타인 인정 추구	.122	.263	.037	3.245***
타인 인정 추구 → 사회불안	.327	.257	.094	3.493***
행동억제 기질 → 사회불안	.881	.595	.156	5.644***
행동억제 기질 → 타인 인정 추구	.422	.363	.124	3.398***

주.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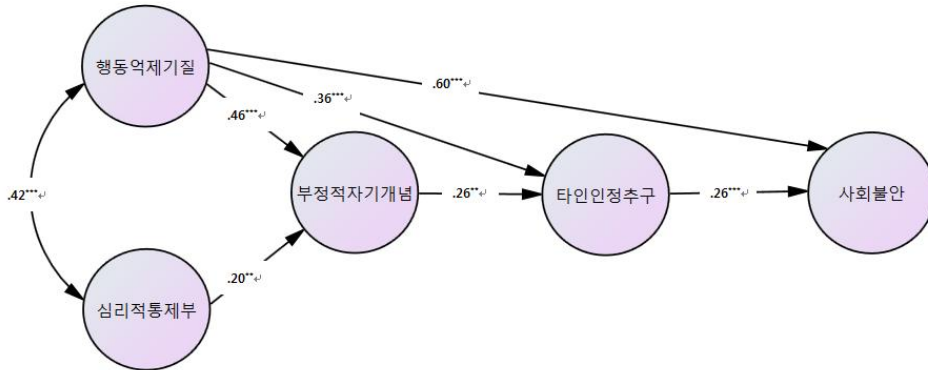


그림 12. 수정 모형 검증

표 7. 매개효과 및 매개효과 간 차이 검증

효과	Estimate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95%	upper 95%
매개경로1	.041	.026	.002	.111
매개경로2	.015	.015	.000	.061
매개경로3	.123	0.066	.046	.236
전체 매개효과	.055	.037	.001	.147
매개효과 차이	.026	.020	.003	.10

주. N = 285, Bootstrap samples = 5000, 매개경로 1. 행동억제기질 → 부정적 자기개념 → 타인인정추구 → 사회불안, 매개경로 2. 부의 심리적 통제 → 부정적 자기개념 → 타인인정 추구 → 사회불안. 매개경로 3. 행동억제기질 → 타인 인정 추구 → 사회불안.

하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의 심리적 통제에서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 인정 추구를 통하여 사회불안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95% BC 신뢰구간(.000 - .061)사이에서 0을 포함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오차, 신뢰구간, 그리고 매개효과간의 차이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다음으로 채택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AIC, BIC, ECVI가 경쟁모형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들의 적합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불안의 발달을 야기하는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행동억제기질과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행동억제기질 및 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행동억제기질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이르는 간접 경로와 행동억제기질이 타인 인정 추구, 사회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행동억제기질이 심리적 변인들을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불안에 특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변인들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행동억제기질이 취약성 요인을 넘어서 그 자체로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오경자, 양윤란, 2003; Biederman et al., 2001; Mick & Telch, 1998; Wittchen, Stein & Kessler, 1999; 양주경, 2007에서 재인용). 특히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성인기 초기에도 여전히 사회불안의 발달에 기질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효능감 수준이 조절하여 사회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서경현, 유제민, 안경미, 2008)와 행동억제기질이 외상경험, 또래관계 등의 스트레스 요인과 상호작용할 때 대인불안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연구 결과(이경은, 하은혜, 2011)를 고려해볼 때, 행동억제기질이 다양한 변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지적 및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행동억제 기질이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사회불안을 발달 혹은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높은 수준의 행동억제기질을 지닌 사람들은 외부 단서를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에 두려움을 느끼며 타인의 인정을 더욱 추구하게 되어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의 발달에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과 더불어,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양주경, 2007)에서 더 나아가, 사회불안에 더욱 특정적인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 개념에서 타인 인정 추구를 통해 이르는 경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타인 인정 추구,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표본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접적으

로만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안명희, 2011; Nanda et al., 2012)와 가족 및 부모 관련 변인이 수행불안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기존 연구 결과들(양주경, 2007; 오경자, 양윤란, 2003; 최미미, 2008; 호유나, 2005)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심리적 통제 행동은 자녀가 유능감과 자신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게 만들어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달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를 통해 사회불안에 이르는 간접 경로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다른 매개 혹은 조절 변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 덜 관여하는 문화적 특징을 고려해볼 때,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낮게 측정되었을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만 주목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하나의 요인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행동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의 발달 및 유지에 중요한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 개념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행동억제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소연, 2014; 양주경, 2007). 또한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타인의 인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사회 불안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 개념을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의 부정적인 단서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더욱 몰두하게 되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에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사회불안이 증폭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적인 자기상을 지니고 있고 자기 가치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인정과 긍정적인 수용을 추구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신희수, 안명희, 2013; Flett, Besser, & Hewitt, 2014).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안전행동으로 나타나는 타인 인정 추구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생물학적 요인인 행동억제기질,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심리적 요인인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사회불안의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행동억제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를 매개해 사회불안으로 이행되는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기질과 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개인 내 심리적 요인이 사회불안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높은 수준의

행동억제기질을 지니고 있거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더라도, 자기에 대한 표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자기 내부에서 강화를 얻을 수 있다면 사회불안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질은 안정적인 변인으로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고, 또한 서구 문화의 대학생들과 달리, 국내 대학생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환경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여성가족부, 2010: 신희수, 안명희, 2013에서 재인용), 어려서부터 지속되어 온 부모의 심리적 통제 행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인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 인정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불안을 치료하는데 있어 경험적으로 효과가 인정된 인지행동치료(CBT)는 인지적 재구성, 노출 훈련 등의 치료 요소를 통해 개인의 부정적인 신념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수정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련된 대안적 사고를 탐색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인지행동치료의 한계점을 보완한 치료로 주목받고 있는 수용전념치료(ACT)는 내적 경험을 통제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과업에 전념하도록 한다.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동시에 자신의 원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교 내 심리학 수

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변인들은 자기 보고 설문지를 통해 동일 시점에 측정되었는데, 행동억제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변인들은 아동기 경험에 대한 회고적 자기보고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시각에만 근거해 측정하였다. 회고적 보고이므로 아동기 경험에 대해 부정확하게 회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사회불안은 정보처리 편향과 관련이 있어 높은 사회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동기 경험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김수진, 박기환, 2017; Clark & Wells, 1995; Rappe & Heimberg, 1997).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이나 관찰자 간 평정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회고적 보고의 신뢰도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상황 및 환경적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행동을 지각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상황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만을 제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부모 자녀 관계와 더불어 교우 관계의 경험은 사회적 능력의 학습이나 자기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대학생 시기는 교우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교우 관계

에 대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소연 (2014). 행동억제 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불안 통제감과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송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은 (2005). 발표불안집단과 사회불안 하위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희 (2013). 자기에 취약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타인인정추구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지 (2014).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 우울이 대학생의 폭식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현, 유제민, 안경미 (2008). 초등학생 사회불안의 예측 모형: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675-693.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안명희 (2011). 모의 심리적 괴롭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무기력과 자기 부적절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145-164.
- 양주경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기제: 행동억제 기질, 가족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 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 기질, 부모 양육 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3), 557-576.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행동억제 기질, 부모 양육 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3), 577-597.
- 오윤희 (2006). 사회불안장애 발병요인의 구조적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주희, 김은정 (2015). 부정적 자기 개념과 자기 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 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5(3), 619-637.
- 이경은, 하은혜 (2011). 청소년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 *인지행동치료*, 11(2), 39-57.
- 이경희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소담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성인진입기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사회공포증에

- 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신경정신의학*, 33(2), 305-311.
- 이정숙 (2010).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자기강화, 성공-실패경험의 매개역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용래, 원호택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임상적 평가 3: 역기능적 신념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141-162.
- 최명진 (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미 (2008).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검증.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가희, 김정민 (2017). 대학생의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7(2), 161-179.
- 한민희 (2010). 여대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몰입의 관계에서 타인 및 자기인정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유정 (2002). 청소년의 행동억제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호유나 (2004).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홍세희,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적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865-880.
- Abramowitz, J. S., & Moore, E. L. (2007). An experimental analysis of hypochondria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413-42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im, R. G., & Shapka, J. D. (2008). The impact of pubertal timing and parental 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445-455.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 (2002). Expanding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ce* (pp. 263-2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low, D. H. (2002).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Beidel, D. C. (1998). Social anxiety disorder: Etiology and early clinical presentation.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9, 27-32.
- Biederman, J., Rosenbaum, J. F., Bolduc-Murphy, E. A., Faraone, S. V., Chaloff, J. J.,

- Hirshfeld, D. F., & Kagan, J. (1993). A 3 years follow-up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behavioral inhibi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814-821.
- Brown, G. K. (1990). A causal analysis of chronic pain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2), 127.
- Burns, A. B., Brown, J. S., Plant, E. A., Sachs-Ericsson, N., & Joiner Jr, T. E. (2006). On the specific depressotypic nature of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35-145.
- Browne,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ronis-Tuscano, A., Degnan, K. A., Pine, D. S., Perez-Edgar, K. Henderson, H. A., Diaz, Y., Raggi, V. L., Fox, N. A. (2009). Stable early maternal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predicts lifetime social anxiety disorder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8(9), 928-935.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M. Liebowitz & R. G. Heimberg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Clauss, J. A., & Blackford, J. U. (2012). Behavioral inhibition and risk for developing social anxiety disorder: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51(10), 1066-1075.
- Degn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Multiple levels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729-746.
- Dykman, M. (1998). Integrating 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in depression: Initial tests of a goal-orient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39-158.
- Eric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lett, G. L., Besser, A., & Hewitt, P. L. (2014).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s in depression: An analysis of validation seek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 community sample of young adults.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7, 67-85.
- Fox, N., Henderson, H, Marshall, P., Nichols, K., & Ghera, M. (2005). Behavioral inhibition: Linking biology and behavior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Annual Reviews of Psychology*, 56, 235-262.
- Hardin, E. E., Varghese, F. P., Tran, U. V., & Carlson, A. Z. (2006).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self-constru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2), 346-358.
- Hirshfeld-Becker, D. R., Miscco, J., Henin, A., Bloomfield, A., Biederman, J., & Rosenbaum, J. (2008a). Behavioral inhibition. *Depression and Anxiety*, 25, 357-367.
- Hofmann, S. G. (2007). Cognitive factors that maintain social anxiety disorder. A comprehensive model and its treatment implication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6(4), 193-209.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17-256.
- Lohr, J. M., Olatunji, B. O., & Sawchuk, C. N. (2007). A functional analysis of danger and safety signals in anxie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114-126.
- Martin, H. J. (1984). A revised measure of approval motiv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5), 508-519.
- Mick, M., & Telch, M.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Nanda, M. M., Kotchick, B. A., & Grover, R. L. (201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hood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lack of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4), 637-645.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ce*(pp. 168-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rrish, C. L., & Radomsky, A. S. (2006). An experimental analysis of responsibility and reassurance: Relationships with compulsive chec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Consultation and Therapy*, 2, 174-19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 Preachers,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 879-891.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25, 111-164.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6), 611-617.
- Rector, A., Kamkar, K., Cassion, S. E., Ayearst, L. E., & Laposa, J. M. (2011). Assessing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in the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7), 911-917.
- Rubin, K. H., Stewart, S. L.,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1. Children and parenting (pp. 225-284). Hillsdale, N.J.; LEA.
- Schwartz, C., Snidman, N., & Kagan, J. (1996). Early temperamental predictors of stroop interference to threatening information at adolescenc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0(2), 89-96.
- Schwartz, C.,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1008-101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tein M. B., & Kean Y. M. (2000). Dis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social phobia: epidemiologic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606-1613.
- Wei, M., Mallinckrodt, B., Larson, I. M.,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depressive symptoms, and validation from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68-377.
- Wittchen, H. U., Stein, M. B. & Kessler, R. C. (1999). Social fears and social phobia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omorbidity. *Psychiatria Scandinavica*, 96, 56-63.
- Wu, T., & Wei, M. (2008). Perfectionism and negative mood: The moderating roles of validation from others versus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276-288.
- 원고접수일 : 2018. 11.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1. 22.
게재결정일 : 2019. 01. 22.

Th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Self-concept and Need for reassurance from others

Kyung Ran Byun

Eun 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negative self-concept and need for reassurance from others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among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o examine this hypothesis, 285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Retrospective Self-Report Inhibition(RSRI),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PCS-YSR), Negative Concept of Social Self(NCSS), the Revised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RMLAM), and Social Phobia Scale(SPS). The results indicated that behavioral inhibition had a direct effect on negative self-concept, need for reassurance from others and social anxiety; at the same time, it had an indirect effect on social anxiety that was mediated by negative self-concept and need for reassurance from others.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ly had an indirect effect on social anxiety, mediated by negative self-concept and need for reassurance from others. These results suggest significant clinical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social anxiety,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various factors interacting with behavioral inhibition in the generation of social anxiety.

Key words :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negative self-concept, need for reassurance from others